

2022. 1월 언론보도 스크랩

[신년홍보] 신년맞이 순직소방공무원 추모비 참배

강원도민일보

2022년 01월 03일
(종합)

강원소방 신년맞이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구분호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3일 태백시 365세이프타운 내에 위치한 강원도 순직 소방인 추모비를 찾아 추모행사를 가졌다.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3일 태백시 365세이프타운 내에 위치한 강원도 순직소방인 추모비를 찾아 추모행사를 가졌다.

bono@kado.net

춘천MBC

2022년 01월 03일
(강원)

도민 생명·재산보호 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열려

강원도소방본부가 강원도 순직소방인

추모비를 찾아 추모행사를 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새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순직한 소방 공무원의 넋을

기리고자 오늘(3일) 추모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을

비롯해 강원도소방학교장과 태백·영월 등

소방서장이 참여했습니다.

이승연

경향신문

2022년 01월 13일
(사회)

강원도소방본부, 춘천시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에 신청사 건립

[경향신문]



강원도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2025년까지 297억원을 들여 춘천시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강원도청 신관의 일부 건물을 사용해 온 강원도소방본부는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119시스템 고도화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도유지인 춘천시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 1만 5000 를 신청사 예정지로 확보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5층 본동과 부속동 등 연면적 635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또 신청사에 영상과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첨단기능의 재난신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설계작업에 들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강원도소방본부, 춘천 우두동에 신청사 건립

농기원 터에 2025년까지 준공강원도소방본부는 춘천시 우두동 옛 도농업기술원 터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현재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 신관에 입주해 있지만 공간 부족과 건물 노후화로 119시스템 고도화와 사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해 신축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도유지인 옛 도농업기술원 터를 신청사 후보지로 확정했다. 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10월 신복읍에 새 청사를 마련해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는 비어 있는 상태다.

신축되는 도소방본부는 부지 면적 1만5000m²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350m² 규모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업계획 보고를 거쳐 다음 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상반기 중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5년 예정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청사가 건립되면 119긴급구조시스템 등 종합상황실의 전면 리뉴얼을 통해 영상과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첨단 기능의 재난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며 "18개 소방서 4400여 명에 달하는 도소방공무원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 통제로 도민 안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도소방본부 청사 춘천 우두동으로 옮긴다

신재훈

농기원 부지 내년 착공 전망

강원도청 신관에 조성돼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도소방본부가 춘천시 우두동 농업기술원 부지로 이전한다. 총사업비는 297억원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본동과 부속동 등 연면적 6350m² 규모로 신축 계획을 수립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업계획 보고를 거쳐 오는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상반기 중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면 2023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2017년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해 온 강원도소방본부는 당초 춘천시 동내면 학곡지구를 대상지로 검토했다. 하지만 부지매입비가 과다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10월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면서 해당 도유지를 신청사 예정지로 확보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청사가 건립되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전면 개선을 통해 첨단기능을 갖춘 재난신고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 18개 소방서 4400여 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23년 결방살이 끝...강원소방, 춘천 우두동 2025년 신축이전

119시스템 고도화·일사불란 지휘통제 가능...안전 향상 기대



강원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번듯한 청사 하나 없이 20년 넘게 도청에서 결방살이했던 강원도소방본부가 마침내 신축이전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이전한 강원도농업기술원이 쓰던 춘천시 우두동 도유지를 신청사 예정지로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297억원을 들여 1만5천㎡에 지하 1층, 지상 5층, 본동, 부속동 등 전체면적 6천35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도의회에 사업계획 보고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올해 상반기 내로 끝내고,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원소방은 1999년 도청 공간에 동지를 틀었다.

2개 부서 23명에 불과했던 본부 규모는 현재 8개 부서 398명으로 늘었다.

시군 소방서마다 운영하던 119상황실을 2008년 2월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한 이후 신고접수대 10대에 근무자 25명에 불과했던 상황실 규모도 현재 25대 75명으로 증가했다.

조직규모가 커지자 사무실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는 등 사무공간 확보는 물론 119시스템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 춘천시 동내면 학곡지구를 이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부지매입비가 과다해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우두동 이전을 결정했다.

새 청사를 건립하면 종합상황실 전면 개편을 통해 영상과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첨단기능을 갖춘 재난신고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18개 소방서 4천400여 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통제로 도민 안전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강원도소방본부, 2025년 춘천 우두동에 신청사 건립

원석진 기자



강원도소방본부가 2025년까지 춘천시 우두동 강원도농업기술원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강원도청 신관의 공간협소 문제로 지난 2017년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지난해 10월 도농업기술원이 이전하면서 생긴 부지를 신청사 예정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 6천 3백여㎡ 규모로, 사업비 2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소방본부는 올 상반기 중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1방송

2022년 01월 11일
(강원)

간이 스프링클러 "대형화재 막는다"

조기현 기자



[앵커]

단독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의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실제로 화재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산을 통째로 집어삼킬듯 화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제작년 5월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한 화재.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주택 6채와 축구장 110개 넓이, 산림 85ha를 집어 삼켰습니다.

화목보일러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지난해부터 화목보일러 간이 스프링클러 보급 사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양양 390가구와 강릉 236가구 등 도내 7개 시·군 1,225가구에 설치했습니다.

개당 5만 원이 채 들지 않지만, 효과는 상당합니다.

지난 8일 홍천군 내촌면의 한 주택에서는 화목보일러 재처리 소홀로 불이 났지만, 간이 스프링클러 덕분에 초기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7일에도 양양군 현남면의 한 주택 화목보일러 건조에서 시작된 불도 간이 스프링클러 덕분에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동해안 산림 화재는 도시를 덮쳐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올해도 화목보일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강원도소방본부, 지난해 간이스프링클러 1천 대 이상 지원

겨울철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1천 2백여 대가

지원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양양 390대, 강릉 236대, 홍천 235대 등

강원도 6개 시군에 간이스프링클러 1,225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를 초기 진화하는 데

간이스프링클러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江原日報

화목보일러 간이 스프링클러 주택화재 잇따라 막아

소방본부 7개 시군 1천여개 설치
최근 양양·홍천 화재 초기 진화

화목보일러로 인한 주택화재와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가 화재 예방의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3월29일~5월22일, 10월18일~11월29일 등 두차례에 걸쳐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홍

천 등 7개시·군에 간이 스프링클러 1,225개를 설치했다. 이렇게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들은 최근 주택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양양군 현남면 80대 노부부가 거주하는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실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남은 검불(솔잎건초)에서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으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초기에 진화

됐다. 이어 지난 8일 홍천군 내촌면의 주택에서는 집주인 A씨가 화목보일러 연통청소 후 연통 그을음 재를 모아둔 수집통에서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으나 역시 주택내 설치돼 있던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큰 화재를 막는 등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 후 도내에서 3건의 주택화재를 막았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불이 언제 다 꺼졌지' 화목보일러 스프링클러 효과 '톡톡'

강원소방, 도내에 1천200여개 설치...초기진화 사례 잇따라



화목보일러 간이 스프링클러 작동
화목보일러에 설치한 간이 스프링클러가 큰불로 번질뻔한 아찔한 상황을 잇달아 막아내 제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7일 강원 양양군 현남면 80대 노부부가 사는 한 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남은 건조에서 불이 났다.

하지만 천장에 설치돼있던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큰불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튿날 홍천군 내촌면 한 주택에서도 거주자가 화목보일러 연통 청소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찻더미에서 불이 났으나 간이 스프링클러 덕에 금세 꺼졌다.

도내에서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5월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대형산불로 이어져 축구장 면적(0.714ha) 172개에 달하는 산림 123ha(123만㎡)가 잣더미가 됐다.

이에 강원소방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홍천 등 7개 시군에 간이 스프링클러 1천225개를 설치했다.

올해도 지속해서 설치 가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11일 "도민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민들께서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22년 01월 20일
(사회)

'괜찮겠지...' 빙판 건너다 '퐁당'...강원소방 특별구조훈련



강원소방,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은 20일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홍천강 일원에서 겨울철 수난 사고에 대비한 특별구조훈련을 했다.

구조단은 ▲ 입·출수 구멍 천공 ▲ 얼음 밑 적응과 방향 찾기 ▲ 줄을 활용한 요구조자 발견과 인양 ▲ 비상 상황 발생 시 탈출 등을 훈련했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수난사고 235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21일 양구군 방산면 평화의 댐 하류에서 '차박'(차에서 숙박)하던 중 실종된 시민이 얼어붙은 강물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얼음강 빠짐 사고도 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최임수 특수구조단장은 "겨울철 수난사고 현장은 온도나 얼음 상태 등 변수가 많아 대처하기 어렵다"며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원소방,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 훈련

정창영 기자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이 겨울철 해빙기를 앞두고 수난 사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수구조단은 오늘(21일) 홍천군 소매곡리 홍천강 일대에서 얼음 밑에 사람이 빠졌을 상황을 가정한 인명 구조 훈련을 벌였습니다.

얼어있는 강에 빠지는 수난사고는 최근 3년간 5건이 발생해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망률이 높은 사고입니다.

東亞日報

2022년 01월 05일
(종합)

“추위야 물렀거라” 빙벽 등반... 오늘 서울 아침 영하 7도



24절기상 가장 추운 날로 꼽히는 소한(小寒)을 하루 앞둔 4일 강원 인제군 용대리 매바위 폭포에 거대한 빙벽이 만들어져 있다. 강원소방 119 산악구조대 대원이 로프를 고정한 채 빙벽을 오르고 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강원 철원 영하 14도 등 전국이 영하권의 매우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제=뉴스1

강원소방, 겨울철 빙벽사고 대응 강화 훈련 실시



겨울철 빙벽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119구조대원이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달 12일까지 설악산 토왕성 폭포와 인제 매바위 인공폭포 등에서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빙벽사고 대응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청초

춘천 김용원 소방위 '최고영웅소방관' 선정



춘천 김용원 소방위 '최고영웅소방관' 선정 ◇최고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김용원 소방위(오른쪽)가 이흥교 소방청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용원(53) 춘천소방서 소방위가 전국 최고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됐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김 소방위는 19일 개최된 '제16회 영웅소방관 시상식'에서 전국 최고영웅소방관으로 선정돼 소방청장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그가 속한 춘천소방서는 기관 표창을 받았다.

영웅소방관 시상식은 소방청·에쓰오일·한국사회복지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에서 29명을 추천받아 최고영웅소방관 1명, 영웅소방관 7명을 선정했다.

최고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김 소방위는 소방공무원으로 25년간 재직하면서 춘천 의암호 실종자 수색활동 등 각종 구조현장을 누볐다. 특히 지난해 10월31일 비번이었음에도 춘천 팔미교차로에서 5톤 화물차가 전복된 사고를 발견하고 운전자 구조에 나섰다. 당시 그는 팔에 20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지만 운전자를 구조해내며 이 같은 유공을 인정받았다.

김용원 소방위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기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김용원 소방위 ‘전국 최고 영웅 소방관’ 선정

팔뚝에 20바늘 꺾매 상처 입고도 뒤집힌 차량서 운전자부터 구해

트레일러를 피하려다 팔뚝을 다쳐 20바늘이나 봉합하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뒤집힌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소방관이 전국 최고 영웅 소방관으로 뽑혔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에스오일(S-OIL) 본사에서 열린 ‘제16회 영웅 소방관 시상식’에서 김용원(53) 춘천소방서 소방위가 전국 최고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돼 소방청장 표창과 기관 표창을 받았다.

25년간 현장을 누빈 베테랑 구조대원인 그는 2020년 춘천 의암호 실종자 수색 활동 등 인명구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 비번날 춘천시 신동면 팔미교차로 인근 밭에서 노모와 함께 일을 하던 중 도로



최고 영웅 소방관으로 뽑힌 김용원 춘천소방서 소방위(오른쪽)와 이흥교 소방청장. [연합뉴스]

를 이탈해 받을 뒀던 전복된 트레일러에서 운전자를 구했다. 그는 사고 파편으로 인해 팔뚝에 20바늘이나 꺾맸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운전자를 먼저 구조했다.

김 소방위는 “당시 운전자를 먼저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영광스러운 수상에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2*11.3)cm

[사건 이슈] 춘천 푸르지오 아파트 화재

한국일보

2022년 01월 12일
(종합)

춘천 초고층 아파트 불... "소화기 들고 49층까지 뛰어 진화"

3월 입주 예정 주민피해 없어
작업자 1명 연기 마셔 치료 중
"준공 전 소방설비 작동 안 해"



12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온의동의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49층에서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입주를 앞둔 초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준공 검사를 받기 전이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자칫 아찔한 순간으로 이어질 뻔했다.

강원소방본부는 12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온의동에 짓고 있던 아파트 49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화재 초기 아파트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펌프차를 비롯한 장비 15대와 진화대원 40명을 투입, 20여분 뒤 불길을 잡았다. 대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3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작업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소방관들은 소화기를 들고 49층까지 뛰어올라야 했다. 소화기와 함께 아래층에서 나오는 물을 진화에 사용하고, 호스를 여러 개 이은 뒤 펌프차까지 연결해 불과의 사투를 벌였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구조와 화재 확산에 대비해 소방헬기를 대기시켰다.

비록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준공 전 소방설비 작동 여부가 불확실하고 고가 사다리차 등 초고층 화재를 잡을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소방당국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구 배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춘천 초고층 아파트 신축공사장 49층서 화재... 헬기 투입



춘천시 온의동 초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장 화재(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1.22/뉴스1

12일 오전 9시40분쯤 강원 춘천시 온의동의 한 초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곳은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의 최고층인 49층으로, 이 지점에서 다량의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고 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고가차(53m용)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48명의 진화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대원들은 비상용 승강기를 통해 화재 발생지점으로 이동해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난 탓에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오전 10시23분쯤 강원소방헬기 1대도 투입해 진화 중이다.

강원소방 대원 코로나 전국 동원령 마치고 복귀



강원소방 대원 코로나 전국 동원령 마치고 복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서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자 구급업무 이송지원을 위해 열흘간 동원됐던 강원소방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복귀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원주·삼척·홍천·횡성 등에서 구급차 4대와 인원 16명이 동원돼 서울 강서·강동·마포·도봉소방서에 배치됐다. 이들은 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68명을 이송했다.

전국동원령은 대형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시·도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비상동원하는 운영체제로 3단계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9년 양양·고성 산불 당시에도 전국 동원령 2호가 발령된 바 있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전국동원령에 근무한 구급대원을 격려하며 강원소방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江原日報

2022년 01월 05일
(종합)

[포토뉴스] 강원도소방본부 승진임용자 임명장 수여식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소방정 승진임용자 및 강원도소방본부 전임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수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소방, 소방경 임명장 수여식

신재훈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17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소방경, 소방위 승진임용자 및 소방본부 전입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17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소방경, 소방위 승진임용자 및 소방본부 전입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ericjh@kado.net

강원도소방본부, 소방경 이하 447명 인사 단행

신재훈

강원도소방본부는 13일 도내 소방관서 소방경(6급)63명을 포함한 총 447명의 전보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대상자는 소방경(6급) 63명, 소방위(6급) 122명, 소방장(7급) 101명, 소방교(8급) 135명, 소방사(9급) 26명이다. 횡성소방서 고원기·전필성 소방경은 원주소방서, 횡성소방서 임채환 소방경은 홍천소방서, 횡성소방서 소방경 김주엽은 평창소방서에 발령됐다. 신재훈

ericjh@kado.net

[정책보도] 모범공무원 표창수여식

江原日報

2022년 01월 06일
(종합)

[포토뉴스]도소방본부 모범공무원 표창수여식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윤상기)는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헌신적인 현장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소방의 명예를 드높인 '202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표창'을 시상했다.

news 1

강원소방, 하반기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식

기사입력 2022.01.05. 오후 4:40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공감 댓글

요약본 가 [] []



202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식(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1.5/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5일 지난해 헌신적인 현장활동으로 도민 안전을 수호하고 소방 명예를 드높인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식을 가졌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1월 11일
(종합)

강원소방 신임 강원도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임명장 수여

구본호



▲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11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이순석 신임 강원도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최완규 수석부회장, 유석규 부회장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11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이순석 신임 강원도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최완규 수석부회장, 유석규 부회장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bon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2년 01월 13일
(종합)

강원도소방본부,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소방지휘관 회의

신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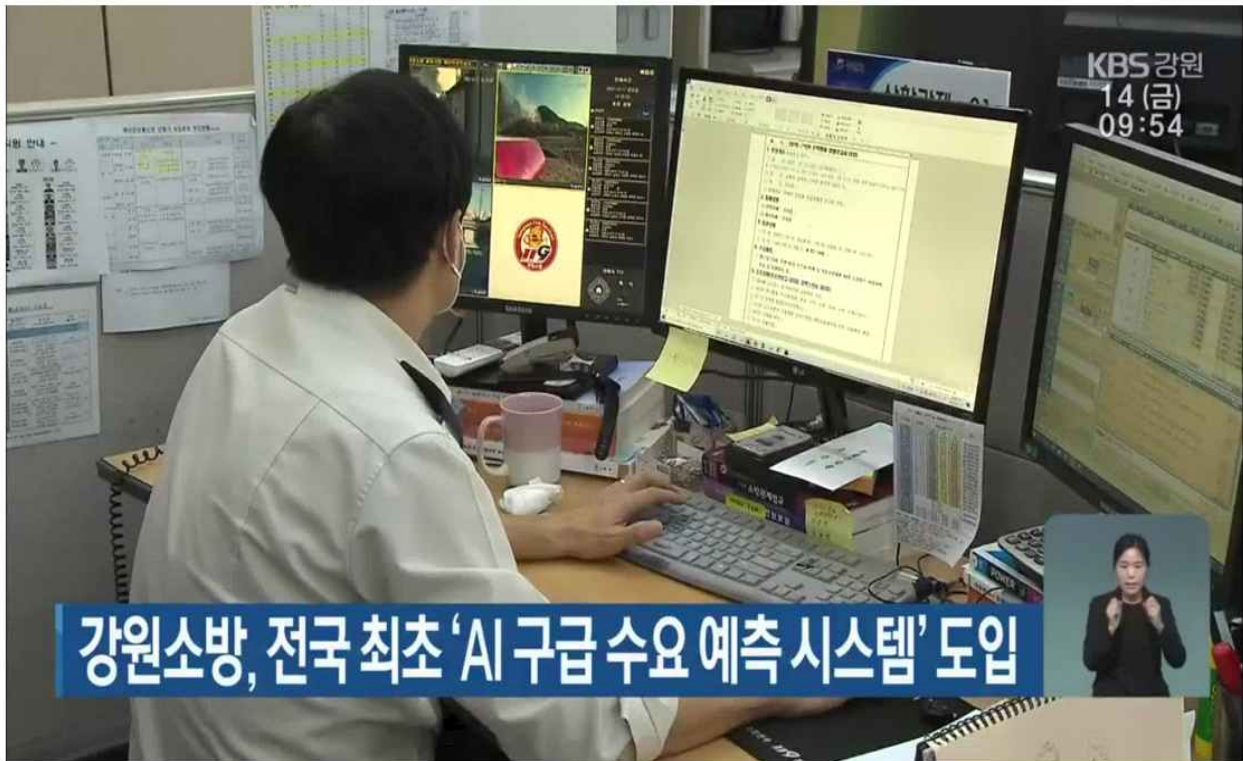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소방본부 전략상황실에서 화재안전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강원도내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소방본부 전략상황실에서 화재안전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강원도내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ericjh@kado.net

강원소방, 전국 최초 'AI 구급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



강원도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올해 3월부터 '지능형 AI 구급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인공지능 A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구급 수요가 높은 장소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선제적인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소방은 예측 시스템을 통해 향후 5년간 심정지 환자 620여 명의 생존 가능성이 커지고, 연간 의료비용 2,2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매일경제

2022년 01월 17일
(사회)

'더는 다치는 소방관 없길...' 강원소방, 안전사고 대책 회의



강원소방,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 회의
강원도소방본부는 17일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 회의를 했다.

최근 5년간 신규채용 된 2천여 명이 넘는 소방공무원 중 절반이 현장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어 현장 경험 부족에서 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강원소방은 현장실습 위주 교육 강화, 팀 단위 화재진압 전술 훈련 강화, 현장지휘관 지휘 능력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江原日報

2022년 01월 19일
21면 (인물)

사설구급차 긴급환자 이송 도운 강원소방

홍천소방서 의료용산소 지원

사설구급차로 이송되던 긴급환자가 강원소방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에 도착한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밤 11시께 심정지 후 회복 환자인 A씨가 사설구급차를 통해 속초에서 서울로 이송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송 도중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게 됐고, 다급한 상황에 사설구급차는 119로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홍천소방서에 신고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홍천소방서는 의료용 산소용기를 준비해 놓고 밤 11시58분께 사설구급차가 도착하자 곧장 산소용기를 교체, A씨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18일 A씨의 이송 의사와 보호자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조치한 소방당국에 전화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태인 홍천소방서 안전주임은 “환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9.9*9.5)cm

江原日報

2022년 01월 19일
(종합)

지난해 '1분'마다 119신고



지난해 '1분'마다 119신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강원도에서 1분13초마다 119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2020년보다 9.2% 증가한 42만7,2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하루 평균 1,170건으로, 1분13초마다 119 전화벨이 울린 셈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화재 1만2,967건, 구조 3만2,838건, 구급 11만3,034건, 민원 1만3,758건, 기타 25만4,628건 등이었다.

출동은 하루 평균 482건으로, 2분59초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1,780건 발생해 전년 대비 4% 감소했고, 이로 인한 출동은 4,869건이었다. 인명피해는 사망 20명, 부상 139명 등 159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355억2,700만원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외부활동 인구가 다시 늘어나면서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지난해 강원도 소방활동 전년대비 증가

정창영 기자



지난해 강원소방의 출동 건수가 22.8%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 소방 출동활동은 하루 평균 482건을 기록했고,

구급상황이 11만 6,8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조상황이 4만 4,381건, 화재가 4,86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하루 평균 1,170건이 접수됐습니다.

철원 한탄강서 소중한 생명 살린 영웅들에 '119의인상'

소방청 이용금·노범택씨에 시상 지난해 강에 빠진 청년 3명 구해



철원 한탄강서 소중한 생명 살린 영웅들에 '119의인상' ◇소방청은 11일 제3회 119의인상 시상식을 열고 이용금(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노범택(왼쪽에서 다섯 번째)씨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

속보=지난해 철원 한탄강에서 물에 빠진 남성 3명을 구조한 의인들(본보 2021년 7월20일자 16면 보도)이 소방청 119의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11일 제3회 119의인상 시상식을 열고 이용금(51)씨와 노범택(47)씨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 119의인상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나타내는 상으로, 2018년부터 시행해 이번까지 총 31명이 수상했다.

이씨와 노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4시께 철원군 동송읍 한탄강 태봉대교 인근에서 물에 빠진 20대 남성 3명을 발견했다. 물에 빠진 남성들은 함께 놀러온 일행으로, 물놀이를 하던 중 3명이 갑자기 수심이 깊은 지점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목격한 이씨와 노씨는 강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내에 있던 구조도구를 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2회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청년 3명을 전원 구조한 후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이 같은 활약에 도소방본부는 이들을 유공자로 추천했고, 이날 시상식에서 119의인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철원 동송의용소방대에서 보급반장을 맡고 있는 이용금씨는 여름철에는 지역 내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노범택씨는 사고 당시 한탄강 트레킹에 나섰다 사고를 발견하고 구조를 도왔다.

이용금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수심이 성인 키보다도 깊어 겁이 나기도 했지만 빨리 구하지 못하면 청년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강물에 빠진 청년 3명 구한 용감한 시민들 '119의인상'



2021년 제3회 119의인상 수여식

지난여름 철원 한탄강에 빠진 청년 3명을 구조한 철원 동송남성의용소방대 소속 이용금씨와 시민 노범택씨가 11일 소방청으로부터 나란히 119의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철원군 동송읍 태봉대교 인근 한탄강에서 물에 빠진 20대 남성 3명을 발견, 강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내 구명 밧줄을 가지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 모두 구조했다.

철원 동송남성의용소방대 보급반장이자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인 이씨는 수상구조대 운영 물품을 두고자 이곳을 찾았다가 사고를 목격하고는 강물에 뛰어들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노씨는 주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사고 현장을 발견해 구조에 힘을 보탰다.

소방청은 2018년부터 민간 인명구조 유공자들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제3회 119의인상에는 전국에서 4명이 뽑혔으며, 그중 강원도에서 2명이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씨는 "성인 키보다 깊은 수심에 겁이 나기도 했지만, 지금 구하지 못하면 청년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설 대비 터미널·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강원도소방본부는 올해 설을 맞아, 이달(1월) 28일까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강원도 내 버스터미널과 공사장 500여 곳, 전통시장 60곳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구비와 정상 작동이며,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됩니다.

조휴연 dakgalbi@kbs.co.kr

[정책보도] 소방본부장 공사장 안전지도 점검

江原日報

2022년 01월 24일
(종합)

[포토뉴스]윤상기 도소방본부장 공사장 안전지도 점검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지난 21일 원주 제일풍경채 아파트 공사장을 방문해 대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장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1월 23일
(사회)

강원소방본부장, 대형공사장 안전지도 점검

신재훈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지난 21일 원주의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현장 화재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점검은 임시 소방시설 적정여부, 화기 취급시 주의사항 준수 여부, 피난로 적정확보 여부,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안전수칙 준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원소방본부는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공사장과 연소확대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지적응 훈련을 추진 중이며, 지난 18일부터 소방시설 공사장을 점검해 입건 4건, 과태료 5건을 처분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윤상기 본부장은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자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KBS 춘천

2022년 01월 25일
(강원)

무면허 업체에 소방공사 맡긴 건설현장 14건 적발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달(1월) 10일부터 도내 공사장 150여 곳에 대해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과 속초, 강릉 등에서 불법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무면허 업체에 소방시설 공사를 맡겼거나, 허위로 착공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등입니다.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4건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휴연 dakgalbi@kbs.co.kr

무면허 시공·하도급에 착공신고도 거짓...공사장 안전 불감 여전

강원소방, 3곳서 위반사항 14건 적발...27일까지 공사장 전수조사



강원소방,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 관리실태점검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달 10일부터 도내 건축공사장 8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3곳에서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공사장은 춘천, 속초, 강릉 각 1곳으로 이들 공사장은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도 않은 업체에 소방시설공사를 맡기거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 착공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소방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입건 4건, 과태료 5건, 행정처분 5건으로 조치했다.

소방본부와 도내 18개 소방서별로 특별조사팀을 꾸려 이달 27일까지 총 15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팀은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위험물 취급이나 위험작업 시 주의사항 등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공사장에서의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해 화재와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2022년 01월 25일
(정치)

강원소방, 설 연휴 특별경계 근무...전통시장 화재 예방 강화



강원도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만여 명과 장비 770대를 동원해 특별경계 근무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거취약지역, 대규모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 순찰을 강화하고, 터미널 등 다중 운집 장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는 등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해 종합상황실 인력을 보강하고, 재난 발생 시 소방력을 총동원해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강원소방이 최근 4년(2018~2021년)간 설 명절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36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화재 장소는 야외 52건, 주거시설 32건, 자동차 12건, 음식점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명절 기간 중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장거리 운전 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사고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책보도] 강원소방,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KBS 춘천

2022년 01월 25일
(강원)

강원소방,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강원도소방본부가 다음 달(2월) 4일까지 설 맞이 복무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감찰 내용은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민원 부당 처리나 지연 처리 등입니다.

점검 대상은 일선 소방서를 포함한 강원도 내 소방공무원 4,300여 명입니다.

김초롱

강원도민일보

2022년 01월 26일
(종합)

강원도소방본부,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신재훈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26일 횡성 웰리힐리파크 리조트 강원도 현장지휘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ericjh@kado.net

言 中 言

소방영웅들의 그을린 미소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중략)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 1958년 미국 캔자스주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세 명의 어린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썼다는 ‘소방관의 기도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기도문으로 유명하다.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故)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이 지난 8일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거행됐다. 고인들의 동료인 채준영 소방교는 “세 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야



할 시간”이라고 울먹이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뜨겁지도 어둡지도 않은 새로운 세상에서 편히 쉬시라”며 추모했다. 유족들은 이렇게는 못 보낸다며 오열했고 소방관 동료들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강원도에서도 2017년 9월 17일 강릉 석리정 화재를 진압하던 2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2014년 7월 17일에는 세월호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광주광역시에서 추락해 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

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순직한 소방관은 49명에 달한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인명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특히 대형 창고 화재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의 순직이 되풀이되고 있어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든다. 더 이상 소방관들의 사명감에 기대지 말고 화재 예방대책과 소방관 투입 안전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 소방관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첨단장비 도입도 절실하다. 평택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다 짝은 생애 마지막 사진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입은 채 그을린 얼굴로 미소 짓고 있는 영웅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되어서는 안 된다.

심은석부국장 · hsilver@

[언론사 보도] 고층아파트 화재대응

KBS 춘천

2022년 01월 12일
(강원)

49층 아파트 화재, 소화기 들고가 진압...고층 화재 대응력 시급



[앵커]

오늘(12일) 오전 춘천에선 공사 중인 49층 높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데요.

불은 한 시간 반 만에 진화됐지만, 강원 소방의 고층아파트 화재 대응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 중인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서 하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외벽 일부는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곳은 49층. 지상에서 160미터 지점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 "불났으니까 나오라고. 대피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튀어나왔지."]

불이 나자 진화인력 40여 명, 소방차 20여 대에 소방헬기 1대까지 출동했지만, 완전 진화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가 준공 전이라 스프링클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직접 소화기를 들고 올라가 불을 꺼야 했습니다.

[김진규/춘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소화기) 한 50대 정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진압을 했고. 마침 바로 밑의 층 세대에서 수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나오는 물하고 소화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가사다리차를 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가장 긴 사다리차는 원주에 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도, 아파트 40층 높이, 120미터까지만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이 높이 이상에서 불이 나면, 물을 옆으로 쓸 수 있는 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이런 소방헬기도 없습니다.

전부 산불을 끌 때처럼 위에서 아래로 물을 쏟아내는 장치만 달려 있습니다.

[정만수/강원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 : "물을 담아 가지고 옥상에 임시 저수조를 만들거나 이러면 거기다가 이제 뿌려줄 수는 있어요. 작전상의 사실 실효성은 거의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따라, 이번처럼 스프링클러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소방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한·박영웅

조휴연 dakgalbi@kbs.co.kr

춘천 49층 화재 반면교사 “고층건물 소화시설 확충 필요”

아파트 내 연결송수관 미완공
아래 층 호스 연결 등 진압 난항
고가사다리차 실효성 지적도

속보=춘천 은의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본지 1월 13일자 1면·5면)를 계기로 강원도 내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화재의 경우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라는 ‘참사’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입주 전 방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층 건물 설계 과정에서 기초 소화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소방당국은 지난 12일 오전 춘천 은의동 신축 주상복합형 아파트 49층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당시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로 아파트 내 연결송수관 미완공을 꼽았다.

화재 진압과정에서 진화대원들은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뿐더러 불이 난 층에서 물을 구하지 못해 아래 층에서 호스를 연결해 물을 끌어올려 가스로 진화를 마쳤다.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진화를 위해 투입된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왔다. 당시 도 소방본부는 원주소방서 고가사다리차를 투입했으나 화재 진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해당 고가사다리차는 강원도에 배치된 장비 중 가장 길어 40층 높이인 120m까지 뿌릴 수 있지만 이번 화재가 49층, 약 150m에서 발생해 정작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결송수관은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서 초기 진화를 원활하게 하려 설치하는 소화설비인데 미완공 상태이다 보니 화재 진

화가 더뎠다”며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연결송수관을 우선 완성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합동감식반을 꾸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조사를 벌인 결과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아파트 내 작은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형광등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화재로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는 빠르면 오는 2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이번 화재 사고를 비롯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등에 따른 화재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3곳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4건을 입건하고 10건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구본호·신재훈

(17.1*12.1)cm

강원도민일보

2022년 01월 24일
(6면 (사회))

도내 순직 소방관 수 전국 두 번째... 멀기만 한 처우 개선

10년간 소방대원 10명 목숨 잃어
공무상재해 54건 2배 가까이 급증
소방노조 "장비 보급·처우개선을"

"여보며칠 있으면 설명절이네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지난 2017년 9월 16일 강릉시 강문동스카이베이 신축공사현장 인근의 석란정 화재 진압을 벌이다 건물 붕괴로 매몰돼 숨진 강릉소방서 소속 고(故) 이영욱 소방경의 아내가 지난 22일 순

직소방관 추모관에 남긴 글의 내용이다. 이 소방경의 아내는 "이번 설명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현충원 성묘가 안 된다고 하네요. 당신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이 나를 견디게 하지만 그 추억이 나를 또 너무 아프고 슬프게 해요"라며 고인을 그리워했다. 당시 이 소방경과 함께 구조작업에 나섰던 강릉소방서 소속 고(故) 이호현 소방교도 끝내 쓸쓸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고 당시에는 이 소방교가 임용된 지 불과 8개월 만으로, 그의 나이는 불과 29세였다.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

대원들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강원도내 순직 소방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사선의 끝에서 잇는 소방대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도내에서는 총 10명의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55

명이 순직했으며 강원도는 경기(15명)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현장 활동 과정에서 공무상 재해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2020년 강원도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공상 접수는 54건으로 불과 10년 전인 2011년(29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평택 냉동창고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대원 3명이 숨지는 사고 이후 소방대원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춘천의 한 주상복합형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49층에서 난 화재는 열악한 강원소방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출동한 고가사다리차는 20층까지만 올라갔고, 출동한 소방헬기는 하강풍으로 인해 회항했다. 결국 소방대원들이 직접 소화기를 맨 채 뛰어 올라가 진화를 마치는 등 고역을 치렀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비의 보급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구본호

(28.7*8.9)cm

江原日報

2022년 01월 07일
02면 (종합)

**동해안 대형 재난 대응
통합지휘조정 통제센터
건립사업 지지부진**

2년째 예산 우선순위 밀려

영동권 산불·폭설·수해 등 대형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동해안 통합지휘조정 통제센터’ 건립사업이 2년째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소방본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상황실 기능 마비 상황을 대비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지휘통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강릉소방서에 동해안 통합지휘조정 통제센터 신축을 추진했다.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에 의해 산불 등 대형 재난의 발생 주기가 단축됐고 재난 양상 또한 단순 산불에서 도시형 산불로 변화하며 대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동해안 센터를 올해 착공해 2024년까지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 3층 규모의 센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은 국·도비 매칭(국비 45억원, 도비 145억원) 사업인데 국비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의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영동지역에서는 센터 건립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산불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겨울철 폭설과 여름철 수해도 잦기 때문이다. 또 도소방본부는 2019년 발생한 고성 산불 등 상황에서 구조기관 연합 대응에 의한 대규모 인력·장비 통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인균(더민주·강릉) 강원도 의원은 “동해안 통합지휘조정 통제센터 건립은 영동권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됐다”면서 “대선·지선 후보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공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김도균·권순찬기자

(5.7*26.4)cm